

“수험생·학부모 안전 최우선”

‘수시 박람회’ 취소... 온라인 개최

대교협,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무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여파
21일부터 온라인서 박람회 진행

오는 21일부터 닷새간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2022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2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수시박람회)’를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단,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박람회는 진행된다.

앞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수시박람회를 추진했다.

수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에게 전형 평가 기준, 대입특징, 성적분석 등 대



대교협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행사를 취소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현장 모습. /뉴시스

학 입시 정보와, 화상상담을 포함한 일대일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시박람회에는 전국 150개 대학이 참가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격상 등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2022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열릴 예정이던 대교협 주최 수시·정시박람회도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해의 경우 역

대 최대인 전국 151개교가 참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대입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입학관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박람회 개최에 많은 관심을 보내준 참가 대학 및 수험생에게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수험생 화상으로 진학상담 받으세요”

서울시교육청 내달 2일~5일 진행
수험생·학부모 등 1500여 명 대상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대비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 상담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 특별진학상담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및 학부모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상담은 비대면 실시간 화상 상담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40분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만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음악, 미술, 체육, 의약, 특성화고 관련 상담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4

시까지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상담자는 선착순으로 확정된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2022 수시 대비를 위한 전형별·계열별 정보가 수록된 ‘2022 대입 쉼(Seum) 진학 수시전형의 이해(학부모용)’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가 연중 운영하는 온라인·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삼성SDS와 보안공동연구센터 1주년 ‘토론’

비대면 화상으로 기념식·토론 가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13일 오후 4시 학내 미래융합기술관 대회의장에서 삼성SDS와 보안공동연구센터 설립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의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장, 이동훈 정보보호대학원 4단계BK21스마트시티보안교육연구단장, 김희강 정보보호대학원-삼성SDS 보안공동연구센터장, 이상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삼성SDS의 이상욱 연구소장, 조지훈 보안연구센터장, 지윤찬 SW보안팀장, 김태현 기술전략팀장, 서재일 사업부장, 변상경 보안전략팀장, 김상진 보안솔루션팀장 등 양측 주요 인사가 비대면 화상으로 참석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삼성SDS 보안공동연구센터 설립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

앞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삼성SDS는 2020년에 정보보호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연어처리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 ▲딥러닝을 이용한 정적 분석 분야 ▲문서형 악성코드

탐지 분야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공동연구 아이템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차세대 보안전문 연구실’ 선정

과기정통부 지정, 49.5억 지원

순천향대학교는 정보보호학과 사이버보안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차세대 보안 표준전문 연구실’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차세대보안표준전문연구실 연구과제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차세대 보안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국제 표준화 의제를 선점하고, 오픈이던 리더 양성·유지를 위 미국·영국 등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위원회·그룹을 제안하며, 관련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기술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제 표준 승인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홍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왼쪽)가 사이버보안연구실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과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순천향대

이 연구과제는 2028년 12월까지 총 49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하게 되며 KT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연구 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순천향대는 AI 보안,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분산 신분증 및 자격증, 양자 암호체계의 신뢰체계 전환 등 차세대 보안 표준화를 총괄한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논술고사 사전체험 기회 제공

23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서 진행

덕성여자대학교가 2022학년도 논술 전형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한다.

덕성여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2022학년도 논술 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모의논술고사는 실제 논술고사와 출제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덕성여대 논술고사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번 모의논술고사는 선착순으로 인문사회계열 150명, 자연계열 100명에게 출제 교수가 직접 채점하고 첨삭한 결과를 제공한다.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덕성여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덕성여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제외) 60명,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5명, 과학기술대학 40명 등 총 105명을 선발한다. 논술고사 80%와 학생부 20%를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학기술대, ‘반도체 직무 아카데미’ 성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교내 서울테크노파크에서 반도체 공정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공정 직무 아카데미’ 실무 과정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도체 공정 직무 아카데미’는 반도체·전자소자 공정 관련 이론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2주간 실무 위주의 이론·실습 병행교육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팹 투어(서울테크노파크 FAB 크린룸 견학, 총 34회)의

높은 학생 만족도를 실습 과정으로 반영해 기획됐다. 이 과정의 핵심은 반도체 공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반도체 산업 동향, 직무 분석을 통한 취업전략 수립능력 향상이다. 총 참여 인원은 60명이다.

이번 직무 아카데미 이론 교육은 반도체 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한 박형무 숭실대 교수(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와 배점환 교수(전 SK하이닉스 MS연구소 연구원)가 맡았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대학생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대상

영문학과 학생들 ‘현모영처팀’
서울 체험형 관광활동 아이디어

호서대학교는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이 ‘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제안서 공모전’에서 서울시와 서울과 지역을 연계한 관광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대학(원)생 4인 이하의 팀으로 구성된 총 115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93개 팀이 서울시 관광발

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냈다. 이 중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지난 8일 제안서 공개발표를 했다.

이 가운데 호서대 영어영문학과 김영진, 김경도, 문현지 재학생으로 구성된 ‘현모영처팀’이 ‘커넥티브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커넥티브 서울’은 서울시 관광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구별로 서울시가 지정한 랜드마크를 사진 촬영 후 퍼즐로 제작해 서울시 지도 모양으로 완성하는 체험형 관광활동이다. /이현진 기자